

- 해외지역정보 -

**베트남, 미국의 PNTR 승인으로 투자여건 개선**

국별조사실

- 베트남은 지난 11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세계 1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최근 베트남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미국으로부터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sup>1)</sup>도 승인 받음으로써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의회의 베트남에 대한 PNTR 승인

- 미국 하원은 지난 12월 9일 오전 베트남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안건을 상정해 찬성 212표, 반대 184표로 통과시켰고, 뒤이어 상원도 찬성 79표, 반대 9표로 승인하였음. 이로써 종전 22년 만인 지난 1995년 정식 수교한 양국은 정치·경제 분야에서 모든 제약을 풀고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성과를 거둬.

1) 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항구적 정상 무역관계)이란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무역관계인 '정상무역관계(NTR)'를 영구적으로 맺는 것으로 NTR은 미국이 교역국들에 낮은 관세로 미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종전의 최혜국(MFN) 대우에 해당하는 개념임. NTR대우 국가는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다른 나라와 똑같은 저관세 혜택을 받게 됨.

### 미국·베트남 관계 변화

시 기	주요 내용
1965~75년	베트남 전쟁
1977년	수교교섭 시작 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중단
1986년	도이머이(개혁개방)정책 개시
1989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철군 완료로 수교 걸림돌 제거
1994년	클린턴 대통령, 대베트남 통상무역 금지령 해제
2000년	클린턴 대통령, 베트남 방문
2005년	판 반 카이 총리, 미국 방문
2006년	베트남 WTO 가입 승인, 미국의 대베트남 PNTR 승인

자료 : 필자 작성

#### □ PNTR 승인 배경

- 그동안 미 의회는 베트남에 대한 PNTR을 승인할 경우 금년 1~8월 중에만 49억 달러에 달하는 대베트남 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들어 승인을 반대해 왔음.
- 그러나 베트남과의 정치·경제적 관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지난 11월 13일 베트남의 PNTR 승인 안건을 긴급 상정하였고, 절차상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결국 미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베트남을 전략적 협력 파트너 국가로 활용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 베트남의 WTO가입으로 베트남 시장 개방 확대를 기대하는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전기, 통신, 자동차, 금융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음. 이처럼 베트남 시장 선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정부가 베트남에 대한 자국 기업들의 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최근 베트남 외국인 직접 투자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연 도	건 수	투자허가금액
2002년	754	1,558
2003년	752	1,929
2004년	734	2,260
2005년	798	4,003
2006년 11월	734	6,152

자료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 □ 대베트남 투자여건 개선 기대

-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증가율은 2005년 77.1%, 2006년 53.7%<sup>2)</sup>를 기록하는 등 최근 큰 폭의 성장을 이루고 있음. 베트남이 정식 WTO 회원국이 되는 2007년 1월 11일 이후에는 대베트남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sup>3)</sup>
- 베트남은 8,600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64%가 30세 이하의 젊은 노동인구로 구성되어 있어, 중국의 대안 투자처로서 각광받고 있음.
- 특히, 최근 과잉 생산 문제와 원자재 확보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중국이 가공 무역 금지품목 확대조치<sup>4)</sup>를 취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은 WTO가입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특혜관세 적용과 섬유쿼터 폐지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2)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외국인 직접 투자로 계산된 수치이므로, 2006년 12월분까지 포함한 전년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62.4%로 추정됨.

3) 이미 호찌민 시에 3억 달러 규모의 컴퓨터 칩 공장을 짓고 있는 인텔은 투자규모를 10억 달러로 늘릴 것이라고 밝히는 등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4) 중국은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와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조치를 통해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줄여 대내적으로는 비효율적 과잉생산, 자원부족, 첨단산업의 육성과 낙후산업의 구조조정을, 대외적으로는 무역수지 확대와 위엔화 평가절상 압력, 외환보유고 증가부담 및 통상마찰 등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

## □ WTO 가입과 PNTR 승인으로 베트남 경제 활성화 전망

- 우선 베트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로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미국과 일본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은행, 보험, 통신 등 서비스 시장으로, 일본은 자동차, 전자 등의 분야로 투자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 우리기업들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에서의 경영 여건 악화, 임가공 수출 금지 조치 등에 따라 중국 대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베트남 정부는 섬유·봉제·신발류 등에서의 경쟁력으로 미국과 유럽 연합 등의 관련 분야 규제가 사라지면 수출이 25% 이상 증대되고, 2010년까지 연 8%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 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

- WTO 가입으로 타 국가 수출에 대한 혜택과 함께 수출보조금 축소, 수입 관세 인하 등의 의무가 부여되었음.
- 베트남은 섬유 신발 등 경쟁력 있는 업종의 수출과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이들 품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없애야하고, 보조금 축소로 인해 수입 원자재 가격도 함께 올라 생산비용 증가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또한 외국기업들의 투자 증대에 따른 베트남 노동력 및 토지 수요 증가로, 임금 상승, 토지 관련 비용 상승 등이 예상됨.
- 경쟁력 있는 섬유산업을 제외한 금융·통신·서비스 등 선진국에 대해 열위에 있는 분야에서의 불리한 경쟁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 베트남 정부는 유예기간을 두어 외국기업의 진출을 당분간 억제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

---

□ 우리의 대응방안

- 최근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도 다각화, 대형화 되면서<sup>5)</sup>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200개의 프로젝트에 22억 1,300만 달러 투자를 기록, 홍콩을 제치고 베트남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음.
- 그러나 베트남의 사회주의 시스템, 투자용 토지 취득의 어려움과 도로, 운송 등 투자 관련 인프라의 열악함은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대베트남 투자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업종별 시장상황과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가 바람직함.

---

5) 포스코 11억 달러, 금호타이어 4억 달러 등 올해 대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음.